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류태환
6156/taehwan.ryu@eugenefn.com

주가 급등 comment: 모멘텀이 너무 많다

- “ 이란 전쟁이 3주차를 넘어서며 1) 고유가에 따른 원가율 압박, 2) 중동 프로젝트 매출 둔화, 3) 신규 프로젝트 발주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지수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강한 상승세를 기록 중.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진 배경에는 다층적인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음.
- “ **[대미 투자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실질적인 대미 투자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국내 건설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 가시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PR1400 노형 진출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 APR1400 도입 시 주간사 CAPA 한계를 고려하면, 비주간사 시공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
- “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될수록, 국가 차원의 에너지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함. 이는 원전, LNG, 재생에너지 등의 플랜트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에게 중장기적인 멀티플 확장 근거를 제공.
- “ **[중전 이후 투자 사이클]** 지정학적 리스크 이면에는 중전 이후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함.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산유국의 재정 확대는 향후 대규모 CAPEX 사이클 재점화 가능성을 시사.
- “ **[3기 신도시 가속]** 정부의 주택 공급 가속화 의지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허가 및 착공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시행 중. 이는 민간 개발사업 위축에 따른 매출 공백이 공공주택 발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
- “ **[저PBR 해소]** 금융당국의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 추진에 따라, 오랜기간 지속되 온 건설업종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 자산 가치 대비 과도한 디스카운트가 축소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 “ 다만 전쟁 장기화 시 실적 추정치 하향은 불가피하며, 2007년의 건설주 랠리와 달리 현재는 해외수주 실적이 아닌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들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 모멘텀을 넘어 실제 수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업종의 멀티플 확장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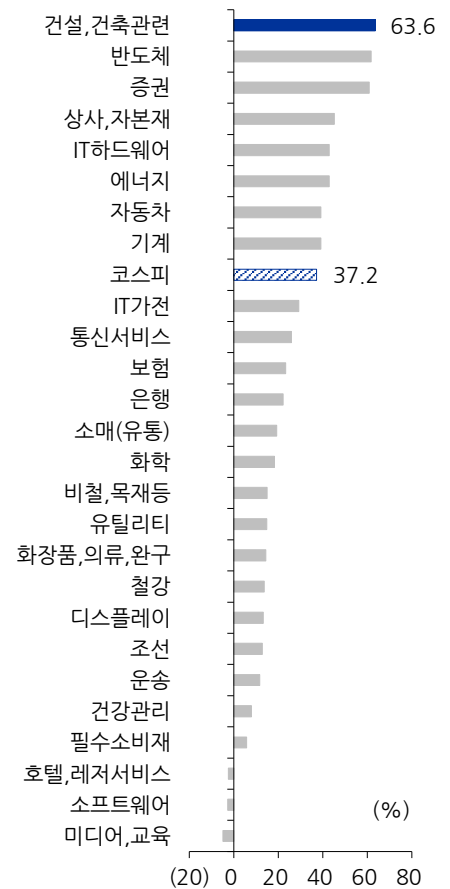
OVERWIGHT

코스피 건설 종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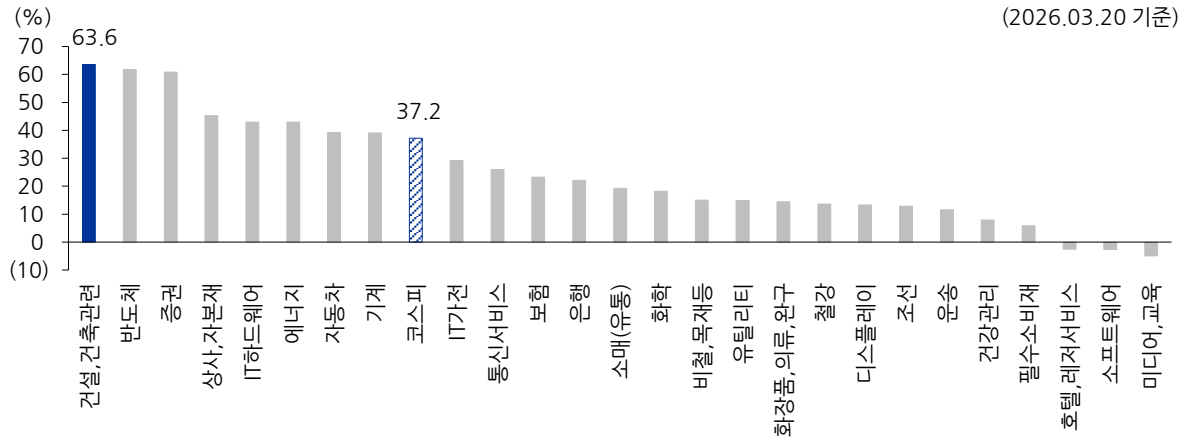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업종별 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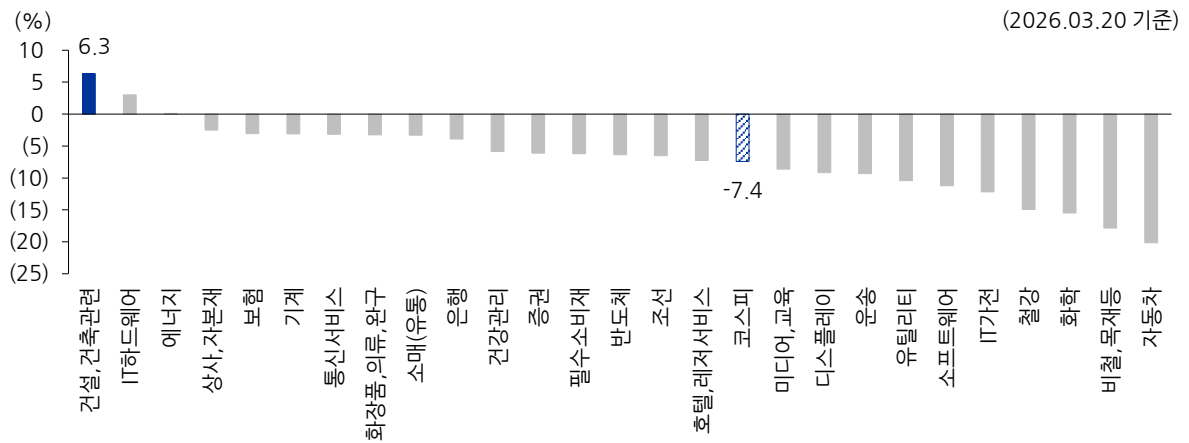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업종별 수익률 ①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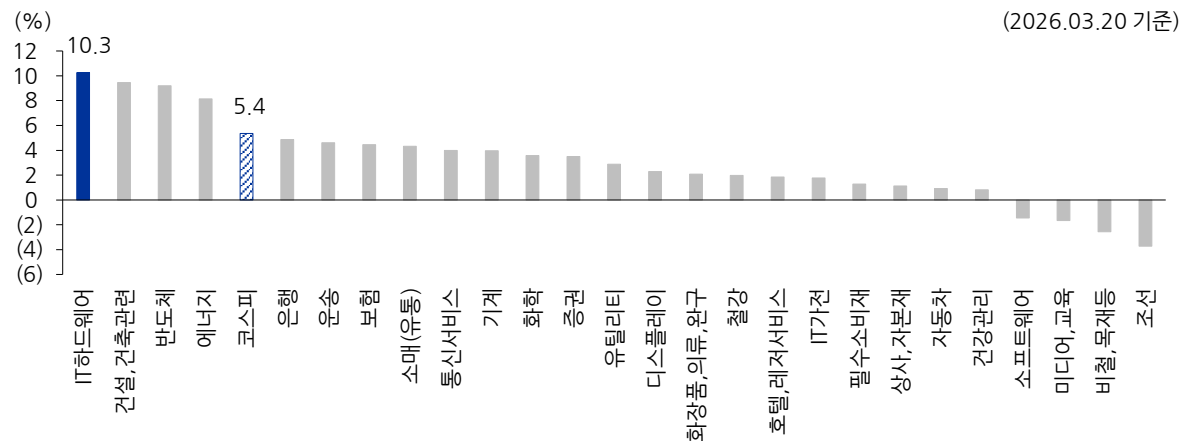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업종별 수익률 ② 이란 전쟁 이후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업종별 수익률 ③ 1 Week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5.12.31 기준)